

오혜리, 태권도 여자 67kg급 '최고령 金'

안녕, 2인자 꼬리표



한국 여자 태권도의 오혜리가 19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 결승전에서 하비 니아레(프랑스)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혜리가 경기 도중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살에 늦깎이 출전 “1인자 됐으니 발 뻗고 잘 것”

“이제 1인자가 됐으니 두 발 뻗고 자게 됐어요.”

28살의 나이로 올림픽 무대에 데뷔해 역대 태권도 여자부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된 오혜리(춘천시청)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다.

오혜리는 지난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하비 니아레(프랑스)를 13-12로 힘겹게 꺾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세 번째 도전 만에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오혜리는 ‘금빛 발차기’에 성공하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2인자’ 꼬리표를 떼었다.

오혜리는 이날 코리아하우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잠도 2시간밖에 못 잤다”며 “경기를 뛰긴 뛰었는데 꿈만 같다. 염원하던 올림픽 무대를 밟았고, 결과가 금메달이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지겹도록 들었던 2인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됐다. 1인자로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활짝 웃었다.

오혜리의 올림픽 출전은 고난을 이겨낸 결과였다. 그는 큰 대회를 앞두고 번번이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이 때문에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았다.

오혜리는 “올림픽 선발전 등을 앞두고 번번이 다쳐 좌절도 했다. 부상관리가 미흡했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리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운동하며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생긴 게 힘든 훈련을 견뎌낸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힘들어서 울었던 적도 있고 우울한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릉선수촌에 특강을 오신 엄홍길 대장이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신 게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며 “잘 안되는 기술이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하자’라는 마음으로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적인 경기로 ‘재미있는 태권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선 “원래 스타일이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오혜리는 “태권도가 재미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선수들은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팬들에게 재미까지 줘야 한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그런 평가 때문에 금메달을 놓칠 수는 없다”고 아쉬운 속내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초과급 패자부활전에서 한국의 차동민이 우즈베키스탄의 드미트리 쇼킨을 골든 포인트로 이겨 동메달을 따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태권도 金보다 더 뜻깊어”

차동민 男 80kg초과급 銅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보다 여기서 동메달이 더 의미 있고 뜻깊어요.”

태권도 대표팀 만행 차동민(30·한국가스공사)이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에 겨워 남긴 첫 소감이다.

차동민은 21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초과급 동메달결정전에서 드미트리 쇼킨(우즈베키스탄)을 연장 접전 끝에 4-3으로 물리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던 차동민이다. 2012년 런던 대회 때는 8강에서 탈락했다.

차동민에게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발차기에 대한민국의 ‘10-10’(금 10개 이상-종합 10위 이내)의 달성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태권도 경기 전까지 한국 선수단은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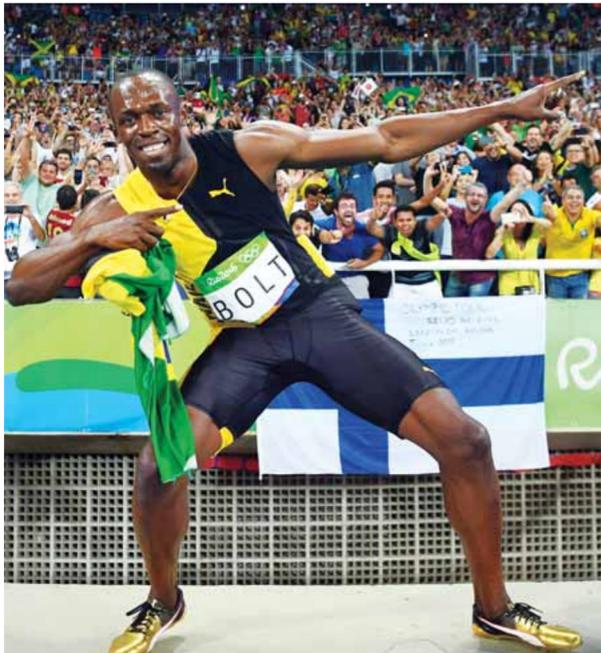
차동민이 8강전에서 역전패해 패자부활전으로 밀리면서 한국 선수단의 ‘10-10’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는 “대한민국이 ‘10-10’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수단에 동메달 하나를 추가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감격해 했다.

한편 차동민이 동메달을 쟁겨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태권도 대표 5명은 모두 메달을 갖고 돌아간다.

역대 최단일 다섯 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차동민에 앞서 여자 49kg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67kg급 오혜리(춘천시청)가 금메달을 수확했고, 남자 58kg급의 김태훈(동아대)과 69kg급의 이대훈(한국가스공사)이 동메달을 따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우승한 자메이카 대표팀의 우사인 볼트가 번개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3×3=볼트

올림픽 100m·200m·400m 계주 첫 3회 연속 3관왕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올림픽 육상 첫 3회 연속 3관왕을 달성했다.

자메이카 남자 400m 계주팀은 20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37초27을 기록해 우승했다.

야마가타 료타, 이즈카 쇼타, 기류 요시히데, 아사카 캄브리지로 구성된 일본은 37초60으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400m 계주 3연패를 이룩한 자메이카의 영커(마지막 주자)는 볼트였다.

아사카 파월, 요한 블레이크, 니켈 아슈미드가 1~3번 주자로 나선 자메이카는 볼트에게 마지막을 맡겼다.

3번 주자 아슈미드가 다가오는 걸 확인한 볼트는 조금씩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고, 바통을 받은 뒤 전력 질주했다.

바통 역시 볼트가 가장 먼저 받았다. 역전은 불가능했다. 볼트는 2위권과 간격을 더 벌리며 결승점에 도달했다.

자메이카는 올림픽 사상 첫 남자 400m 계주 3연패에 성공했다. 100m와 200m에서 올림픽 최초의 3연패 위업을 이룬 볼트는 동료와 힘을 합해 계주 3연패도 달성하면서 리우올림픽 시작 전 약속한 ‘볼트의 기록’ 올림픽 육상 3회 연속 3관왕을 완성했다. 자메이카 남자 계주팀의 신화도 볼트 덕에 만들어졌다.

자메이카는 볼트가 등장하기 전에는 400m 계주에서 금메달 없이 은메달(1984년 로스앤젤레스)만 한 차례 따냈다. 볼트가 계주팀에 합류한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자메이카 400m 계주팀은 속해서 금맥을 쫓았다. 볼트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경기에서 자메이카에 큰 선물을 했다.

동시에 자신도 올림픽 9번째 금메달을 손에 넣으며 1920년대 장거리 선수로 활약한 파보 누르미(핀란드)와 미국 육상의 아이론 칼 루이스와 통산 금메달 획득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우하람 한국 다이빙 첫 결선 올라... 11위

우하람(18·부산체고)이 한국 다이빙 사상 최초로 결선에 올라 11위를 차지했다. 우하람은 21일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 결선에서 6차 시기 합계 414.55점을 받았다.

이전에는 예선을 통과한 선수조차 없었던 한국 다이빙에 첫 준결선에 이어 결선 진출의 낭보를 전하던, 12명이 겨루는 결승전에서 한 명을 제쳤다. 준결선에서 12위로 막차를 탄 우하람은 첫 번째로 플랫폼에 서는 부담을 짊어졌다.

그러나 1차 시기에서 난이도 3.0의 무난한 연기를 펼쳐 76.50점으로 9위에 올라

다. 3차 시기까지도 순항했다. 우하람은 2차 시기에서 81.60점을 받아 8위로 올라서더니 3차 시기에서는 난이도 3.4의 연기로 85.00점을 얻어 8위를 지켰다. 목표로 했던 톱10 진입 이상을 노릴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4~6차 시기에서 실수를 했다. 4차 시기 3.6의 높은 난도 연기를 신청한 우하람은 입수 자세에서 몸이 기울어져 57.60점을 받아 10위로 밀렸다. 5차 시기에서도 몸을 펴지 못해 47.25점에 그쳤다. 마지막 6차 시기에서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66.60점을 얻었다.

/연합뉴스